

VI-4. 문항카드: 논술우수자전형(인문계열)

[성신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2022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교시) / 문항 1~2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세계지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코로나19, 경쟁, 협력, 국가 간 불평등, 탄소중립, 기후협약, 국제사회
예상소요시간	100분	

2. 문항 및 제시문

(1) 문항

【문제 1】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에 제시된 방식을 설명하고, <나>에 제시된 사례들을 참고하여 <가> 방식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처 방안을 제시하시오. (900±100자)

【문제 2】 <다>와 <라>의 관점이 <마>가 설명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협약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다>와 <라>의 관점을 종합하여 <마>에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900±100자)

(2) 제시문

<가>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으로, 그것을 정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만 2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감염병이 지속해서 강하게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상황을 팬데믹으로 정의하였고, 그 특성상 한 국가에서만 코로나 감염병 종식이 성립될 수 없는 점에 주목하면서 감염 전파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코로나 19 감염 전파가 각 국가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가운데 사망자 감소와 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방안으로 현재 백신 접종에 의존하고 있다. 백신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기업과 국가들은 세계적 질병 확산의 공포를 잠식시키고 정상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총력

을 기울였다. 세계 여러 백신 생산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였고, 생산 제품의 보급 확대에 힘썼다.

국제적 제약기업과 자본은 보건의료 자원 중 약품과 백신에 이윤창출과 자본축적을 목표로 개입하게 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도 기업의 동기와 이해관계가 작동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은 각 기업의 이해에 기초하여 동기가 부여되었기에 이는 현실주의적 국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생산과 보급의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한 제약기업과 국가들은 거대한 이윤의 창출이라는 시장의 보상은 물론, 세계적 문제 해결에 공헌했다는 이미지 향상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 시대에도 사회 경제적 지위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에서 경쟁을 통한 생산성과 시장 확보를 이룬 기업이나 국가는 포스트 코로나의 의료협력 체계와 보건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을 통한 능력발휘를 극대화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나>

세계의 언론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투에서 국가들이 협력보다는 경쟁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의료장비와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독일과 프랑스 등 인접 국가들은 관련 물품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지자체가 보건기금으로 터키에서 구매하고자 했던 인공호흡기도 터키 정부가 자국 내 의료품 공급 부족을 이유로 물품선적을 보류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코로나19 관련 물품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은 백신 확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집계를 총괄하고 있는 듀크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용이 승인된 백신은 선구매 계약을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선진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인구수의 배가 넘는 물량을 입도선매하였다. 또한, 백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체제 속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충분한 국내 백신 생산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국외로 공급하는 일정을 미루고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도 하였다. 유럽연합은 2021년 1월부터 유럽 내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유럽 외 국가로 수출하려면 유럽연합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백신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의 상당수는 2021년 말이 되어도 전체 인구의 20%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백신 수요가 늘어나고, 선진국이 부스터 샷 접종을 위해 대규모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형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각각 25%, 10% 이상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두 회사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이미 상당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며 화이자는 2021년 코로나19 백신 매출액 전망치를 기존 260억 달러에서 335억 달러로 28.8% 상향 조정하였고 모더나 매출은 3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국가 정상과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으로 공개편지를 보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국가 간 백신 보급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국가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삶의 공간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로 확대되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 지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으며 코로나 변이출현을 가능하게 하여 코로나 위기상황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가 간 백신 불균형은 단지 일부 국가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노동시장에 공급 부족이 심화 될 수 있어 후진국의 경제회복지원은 선진국에도 손실을 줄 수 있다.

<다>

경쟁은 자연선택과 진화의 원동력이다. 진화의 역사에서 모든 개체는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쟁한다. 필요한 가용자원은 언제나 부족하며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필연적이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경쟁만이 최적자를 가려내는 유일한 방도이고 경쟁의 이유는 자원의 희소성이다. 경쟁의 승리는 필요한 자원의 획득을 보장하며 경쟁의 과정은 개인 및 집단의 능력을 최적화한다. 개인은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국제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으며 기업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에 따르면, 시장에서 경쟁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가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한,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어떤 가격으로든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의 진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한다. 시장 진입을 제한하려는 힘이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법이 용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물량을 통제하게 되면, 개인이 각자의 노력을 유효하게 조정하는 경쟁능력은 박탈된다. 경쟁은 선택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의 전망을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경쟁이 선호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우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경쟁은 가장 효율적이며, 권력의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를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경쟁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조치로써 강제적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다만 경쟁의 작동을 도울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간섭은 허용하며, 심지어 특정한 종류의 정부 활동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경쟁이 개인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라>

협력이 발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에게 협력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는 상황일 경우, 협력하고자 하는 개체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협력하는 것이 손해가 아닐 때조차, 배신의 유혹 때문에 협력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는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자원이 희소하더라도 개체들이 협력을 통해 비제로섬 게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호협력이 가능해진다.

진화의 역사에서 개체들은 협력과 배반의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며 생존과 번식을 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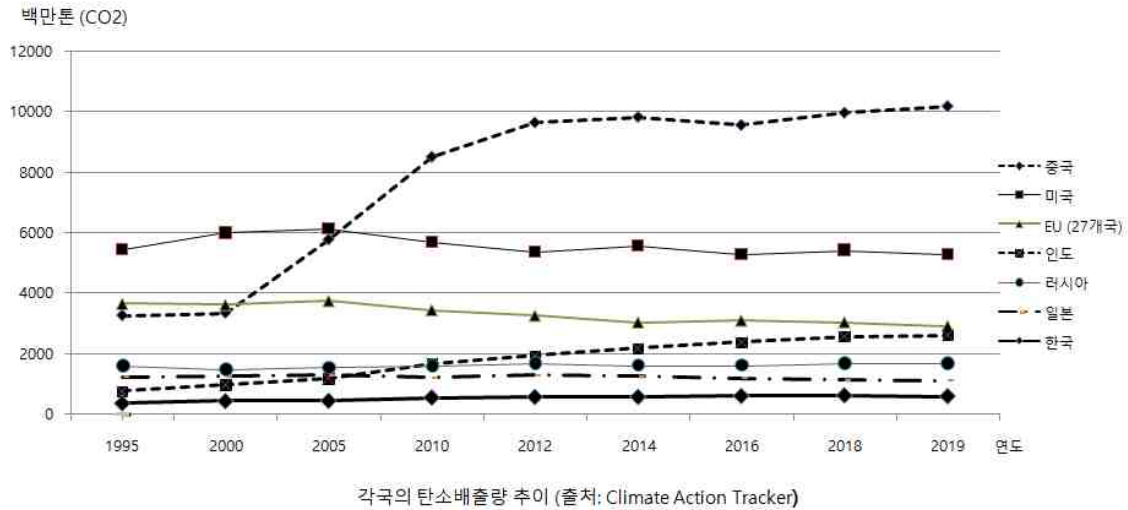
상대가 배반할 때도 계속 협력하기만 하는 전략은 얻는 게 가장 적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배반만 하는 전략을 사용할 경우, 결국 상대의 배반을 유도하게 됨으로써 상호배반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액셀로드(Robert Axelrod)에 따르면, 가장 성과가 좋은 전략은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배반하면 갚아 주는’ 방식이다. 이 전략은 이용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배반의 메아리를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협력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이 전략의 성공은 신사적이고, 보복적이고, 관대하고, 명료한 특성들이 조합된 결과이다. 결코 먼저 배신하지 않는 신사적 태도는 쓸데없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하며, 보복적이기에 상대의 배반이 지속되지 못하게 만든다. 상대가 배신한 후에도 협력하기를 계속하는 관대함은 상호협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협력에는 협력으로 배반에는 배반으로 대처하는 명료성은 상대를 쉽게 이해시켜 장기적 협력을 끌어낸다.

연구 공동체 수유너머는 협력의 전략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할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번째는 질투심을 버려야 한다. 성공은 상대를 이기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상대를 먼저 배반하지 않는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승자가 되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보복할 때 확실히 보복해야 한다.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하지 않을 때 단호히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상대가 협력이 더 나은 선택임을 인지하여 협력에 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영악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손실이 발생할지라도 늘 단순하고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적 상황에서 협력을 끌어내려면 상대에게 내 행동 원칙을 명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즉 나는 기본적으로 협력하지만, 당신이 나를 배신하면 나도 보복할 것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마>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는 세계적 이상고온 및 폭우 등 자연재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심각한 사회 경제적 피해로 가시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으로 채택되었던 교토의정서는 일부 선진국의 참여 거부, 후진국의 감축 의무 부재, 그리고 이행 기간의 제한 등으로 큰 실효를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서 2016년 파리기후 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동참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는 공동의 노력에 대한 합의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후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고, 기후위기 대응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는 파리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서 선진국에게 후진국과 기후변화 취약국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영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8%, 프랑스는 55%, 한국은 24.4% 감축하겠다고 하는 등 각국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란, 터키, 이라크, 예멘, 남수단, 에리트레아, 리비아 등 7개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가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하여 공동의 노력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파리협정 후 5년이 된 현재까지도 큰 성과를 체감하기 힘들고 현재의 추세로라면 오히려 지구 온도가 세기말에는 섭씨 3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순 합계가 0이 되는 상태



3.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질병 관리청과 각국의 뉴스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개발과 접종을 증가로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과 국가가 제한되어 있어 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경쟁이 가장 효과적인 능률의 극대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쟁에 의한 발전과 기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 교과서:

- 김진영 외(2018), 『경제』 (pp. 26~28), 미래엔
- 육근록 외(2017), 『통합사회』 (pp. 143~144), 동아출판
- 변순용 외(2018), 『윤리와 사상』 (pp. 197~199), 천재교과서

- 제시문 <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경쟁과 백신 불균형 문제 그리고 대형 제약기업들의 막대한 이윤창출 등을 다룬 기사들을 발췌·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위기에서 국가들이 협력보다는 경쟁에 치중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의 역기능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관련 교과서:

- 김진영 외(2018), 『경제』 (pp. 20~21, 72), 미래엔
- 서범석 외(2018), 『정치와 법』 (pp. 186~189), 지학사
- 변순용 외(2018), 『윤리와 사상』 (pp. 200~203), 천재교과서
- 육근록 외(2017), 『통합사회』 (pp. 168~171, 234~237), 동아출판

- 제시문 <다>는 자유주의의 경쟁을 우리의 행위를 조율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방식으로 주장한다. 하이에크의 저서, 『노예의 길』은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경쟁이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우월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개인은 경쟁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행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경쟁의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경쟁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간과 사회를 발전시킨다. 경쟁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통제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쟁의 작동을 도울 수 있는 정부의 활동도 필요함을 지적한다.

관련 교과서:

- 구정화 외(2017), 『천재교육』 (pp. 140~141), 천재교육
 - 김진영 외(2018), 『경제』 (pp. 13~14, 28~29), 미래엔
- 제시문 <라>는 경쟁 대신에 협력을 생존과 번식의 전략으로 소개한다. 로버트 액셀로드의 저서 『협력의 진화』는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략 프로그램으로 티포텟(tit for tat) 을 제시한다. 이 전략은 혈연관계 외에서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할 이유를 알려준다. ‘기본적으로 협력하되 배반하면 갚아주는’ 티포텟 전략은 신사적이고, 보복적이고, 관대하고 명료한 특징을 갖는다. 제시문은 이 전략에 따라 우리가 질투심을 버리고 보복을 확실히 하고 영악하게 굴지 않는다면 상대에게서 협력을 끌어내고 나아가 집단 전체에 협력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교과서:

- 구정화 외(2017), 『통합사회』 (pp. 184~188), 천재교육
 - 변순용 외(2018), 『윤리와 사상』 (pp. 209~210), 천재교과서
 - 김국현 외(2017), 『생활과 윤리』 (pp. 212~213), 비상교육
- 제시문 <마>는 기후 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 사회는 이를 공동의 문제로 숙지하고 함께 대응하려는 협약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면서 20세기 후반부터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범을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국한된 방식, 후진국의 불이행, 시간적 제한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워져 파리협약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삽입된 그래프는 실천적 행동강령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약 역시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교과서:

- 손영찬 외(2017), 『사회·문화』 (pp. 198~205), 미래엔
- 박철웅 외(2018), 『세계지리』 (pp. 192~195), 미래엔

- 구정화 외(2017), 『통합사회』 (pp. 280-281), 천재교육
- 정창우 외(2017), 『생활과 윤리』 (pp. 139-140), 미래엔

4. 출제의도

- 이번 인문계열 1교시 논술고사는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통합사회>, <사회·문화>, <정치와 법> 등의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제 1은 전 지구적 위기인 코로나19 상황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서 경쟁이 해 온 역할을 제시문에서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 뒤, 이를 종합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응시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는 인류 역사 속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경쟁과 협력의 두 가지 측면을 지지하는 상반된 관점을 담은 제시문을 각각 소개하고, 이러한 관점이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협약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응시자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문제 2는 전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쟁과 협력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5.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영역별 내용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p. 59)	제시문 <가> <나> <다> <라>

	성취 기준 2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61)	제시문 <마>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82)	제시문 <다> <라>
	성취 기준 2	[12화작03-06]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담은 건 의하는 글을 쓴다. (p. 82)	제시문 <가> <나> <마>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p. 94)	제시문 <다> <라>
	성취 기준 2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p. 95)	제시문 <가> <나>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6-03]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p. 45)	제시문 <나> <마>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p. 59)	제시문 <라>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p. 123)	제시문 <마>
	성취 기준 2	[10통사08-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p. 134)	제시문 <나>
	성취 기준 3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p. 136)	제시문 <마>

과목명: 세계지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세지08-0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나 생태 발자국, 가뭄 지수 등의 지표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p. 189)	제시문 <마>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2경제01-01]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p. 220)	제시문 <가>
성취 기준 2	[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p. 220)	제시문 <다> <라>
성취 기준 3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p. 220)	제시문 <가> <다>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1	[12정법06-02] 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 (p. 238)	제시문 <마>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p. 252)	제시문 <라> <마>

나) 자료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교과서 등)	재구성여부
국제협력 위기, 새로운 원리 필요 (신문기사)	강현구	의약뉴스	2021.07.09	-	교과서 외 제시문 <가>	○
경쟁칼럼:경쟁과 협력	강철규	경쟁저널	2010	2-3	교과서 외 제시문 <가> <다>	○
백신 불균형 해소: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신문기사)	장영욱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2021.08.02	-	교과서 외 제시문 <나>	○
백신 확보 대안으로 떠오른 '수출차단' 알고 보면 '양날의 칼' (신문기사)	김우현	동아사이언 스	2021.04.07	-	교과서 외 제시문 <나>	○
각국 백신 확보경쟁 더 거세진다. 韓 2차 접종 초비상 (신문기사)	박윤균, 한재범	매일경제	2021.08.02	-	교과서 외 제시문 <나>	○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한 사회를	2021.04.29	-	교과서 외 제시문	○

구하래 (신문기사)		위한 약사회			<나>	
코로나19: 국가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신문기사)	페르난도 두알테	BBC News	2020.04.10	-	교과서 외 제시문 <나>	○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신문기사)	앨리스 커디	BBC News	2020.11.23	-	교과서 외 제시문 <나>	○
노예의 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프리드리히 A. 하이예크	자유기업원	2018	76-77	교과서 외 제시문 <다>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7	141	교과서 제시문 <다>	○
진화와 협력: 고전으로 생각하다	수유너머 N	너머학교	2016	76-87, 98-100	교과서 외 제시문 <라>	○
협력의 진화: 이기적 개인의 티포택 전략	로버트 액셀로드	시스템마	2012	51-79	교과서 외 제시문 <라>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28-29	교과서 제시문 <라>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40	교과서 제시문 <마>	○
International Panel of Climate Change (IPCC) Report	UN	UN	2018	-	교과서 외 제시문 <마>	○

※ 참고자료는 저자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를 명기하며, 교과서 자료와 교과서 외 자료로 구별하여 제시함.

6. 문항 해설

- 【문제 1】의 논제는 <가>와 <나>를 통해, 경쟁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특징을 파악하여 서술하고,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문으로부터 도출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 제시문 <가>는 『경제』,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쟁개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쟁의 순기능을 다룬 신문기사 내용을 발췌·재수정했다.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현재 코로나19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 개발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기업과 국가에 의존하게 되면서 경쟁의 순기능을 제시문에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을 통해 능력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이해하고, 경쟁의 원리가 이윤과 자본의

축적이라는 목표로 인해 효율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쟁의 순기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사례에서 보듯, 뉴노멀 사회로 복귀된 후에도 기업과 국가 이미지 향상 및 이에 의한 또 다른 이득의 확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도출해 볼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 <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경쟁과 백신 불균형 문제 그리고 대형 제약회사들의 막대한 이윤 창출 등 경쟁의 역기능 사례를 다룬 기사를 발췌·재구성했다.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투에서 백신이라는 매개 때문에 협력보다 자국의 이익 증진을 우선으로 하게 되면서 국가 간 백신 수급 불균형 혹은 양극화 문제가 생기는 경쟁의 역기능이 있음을 제시문 <나>에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당면한 과제는, 현재 전 세계가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 간 경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파악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개별 국가에 손해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더라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국익에도 부합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 간 백신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것과 독점으로 인한 이익 추구는 세계적 협력 구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보건 의학에서조차 불평등·불공정의 반사회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행위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 상황에서는 지나친 경쟁보다 모두가 공생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2】의 논제는 제시문 <다> 와 <라>에 나타난 경쟁과 협력의 두 관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방식이 <마>의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협약 이행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와 <라>의 관점의 순기능을 종합하여 <마>의 탄소중립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해결방안의 모색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 제시문 <다>는 『경제』 고등학교 교과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강창규의 논문 「경쟁과 협력」에서 다루고 있는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의 특징과 효율성의 최적화를 발췌 수정하여 제시했다.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다>의 주제어인 경쟁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이 분석을 활용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경쟁이 자연선택과 진화의 원동력임을 파악해야 하며, 경쟁이 가져다 주는 최적의 결과와 경쟁과정에 얻게 되는 능력의 발전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장경제에서 자유경쟁의 특징과 이점을 인식하고 한편으로 이 경쟁을 유효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사회적 통제의 배제와

다른 한편으로 경쟁의 작동을 도울 간섭의 필요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 나아가서 종합적인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서술해야 한다.

- 제시문 <라>는 『생활과 윤리』 고등학교 교과서, 수유너머N의 『진화와 협력』, 액설로드의 『협력의 진화』에서 다루고 있는 윤리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과 반복적 게임에서 협력을 최상의 전략으로 증명하는 틱포택 전략을 발췌하여 재구성했다.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라>의 주제어인 협력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이 분석을 활용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우선 제시문이 설명하고 있는 진화의 역사에서 어떻게 혈연관계 외에서도 협력의 전략이 선택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력만의 전략이나 배반만의 전략을 택할 때보다 협력하되 상대의 배반에 보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어떻게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 나아가서 종합적인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서술해야 한다.

- 제시문 <마>는 기후 변화의 문제를 전 지구적 공통의 과제로 풀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대한 예시이다.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교토의정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등 전세계의 참여와 실천을 끌어내려는 국제기후협약총회의 의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시문이 설명하고 있는 채택안의 변경이 행동적 실천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국가들이 협의적 태도로 탄소배출 감축하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프가 보여주는 탄소배출 감축의 성과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자국에 대한 이익의 획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동적일 수밖에 없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효율적인 국제사회의 협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사고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같이 세계가 함께 공조하지 않고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시문 <다>와 <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마>에 제시된 상황에 대해 경쟁과 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어진 문제를 경쟁과 협력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두 관점을 종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7. 채점 기준

【문제 1】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에서 제시된 경쟁의 순기능을 파악하였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에 제시된 사례에 근거하여 경쟁을 통한 해결방식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서술하였는가? 경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해결방안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1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에서 제시된 경쟁의 순기능을 이해하여 명확하게 서술한다.

둘째, 제시문 <나>에서 경쟁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셋째, 앞에서 파악한 경쟁방식의 문제점에 비추어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국가 간 협력과 연대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서술한다.

<문제 1>

- ①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있어 경쟁이 이바지하는 바를 <가>에서 파악하고 명확하게 서술한다.
- ② <나>에서 경쟁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제시문 <나>를 토대로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경쟁적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서술한다.
- ③ 앞에서 파악한 경쟁에 치중한 접근방식의 문제점에 비추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지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이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문제 2】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와 <라>에 나타난 두 가지 관점, 즉 경쟁과 협력의 관점을 파악하고 있는가? • <라>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탄소중립 실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각국의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가 저조하다)는 내용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의 경쟁을 중요시하는 관점과 <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관점이 <마>에 제시된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협약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가? • <다>와 <라>의 관점을 종합하여 <라>에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 수 있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2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에 기술되어 있는 경쟁의 관점을 파악하고, 제시문 <마>가 설명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협약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한다.

둘째, 제시문 <라>에 기술되어 있는 협력전략 방식을 파악하고, 제시문 <마>가 설명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협약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한다.

셋째, <다>와 <라>의 두 관점을 적용하여 <마>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문제 2>

- ① <다>에서 제시된 경쟁방식이 제시문 <마>가 설명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협약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한다.

- ② <라>에서 제시된 협력전략 방식이 제시문 <마>가 설명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협약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한다.
- ③ <다>와 <라>의 두 관점을 종합하여 <마>의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이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8. 예시답안

【문제 1】

시장경제는 경쟁을 자원 배분의 기본질서로 한다. 사회주의보다 시장경제가 생산력 발전에서 효율적인 것은 경쟁을 통해 능력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의 설명처럼 백신 개발과 생산은 선진국의 막대한 자본 투자와 경쟁력 있는 제약기업의 기술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에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백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업과 국가 이미지는 높아지게 되었고, 이윤 창출의 기회는 더 증가했다. 이렇듯 경쟁은 이윤 창출, 국제 세계에서 우위 확보, 물품 선점유, 보상 등 목표 달성이라는 뚜렷한 명제를 전제로 매우 효율적인 원리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익 추구를 우선으로 한 국가 간 무분별한 경쟁은 휴머니즘을 토대로 한 사회적 연대를 간과할 수 있다. 자국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적인 접근방식만을 고수하면 국가 간 불평등과 후진국의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코로나 19와 같은 지구적 전투상황에서 백신을 매개로 한 반인도적 비즈니스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황금의 중도’를 설정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에 제시된 경쟁을 통한 효율적 성과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나>에서 언급된 협력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비인도적 태도를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 국가에게 감세 혜택, 국제 사

회의 주요한 의사 결정 시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당장의 이익 추구를 위한 선진국 독점과 횡포를 제어해야 한다. 세계 협력체제에서 취득한 이익은 환수하여, 후진국과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고 불평등 감소의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보와 휴머니즘을 기저로 모두가 참여 공생하는 거버넌스의 실천이 필요하다.

【문제 2】

지속가능한 인류생존권의 보전을 위해 전 세계가 한배에 타고 기후변화라는 풍랑에 맞서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한계 때문에 파리협약을 채택하였으나, <마>의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탄소배출량의 감소에 대한 실행은 여전히 저조하다. 협력의 결과가 뚜렷한 이익의 취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각국은 여전히 비용과 편익의 전망에 따라 협력적 구조에서 비껴나 관망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다>의 설명처럼 경쟁은 선택과 진화의 원동력이다. 만약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이윤의 창출이 주어진다면 참여와 노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의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고양되어,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 없이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효과적 목표 달성을 이룰 것이다. <라>의 관점과 같이 공동의 목표로 협력적 구조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면, <다>의 상황과 비교하면 참여와 노력의 의지는 소극적일 것이다. 협력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협력의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규약위반이나 중도 이탈에 대해서 확실한 보복의 태도를 행사함으로써 협력만이 나은 선택임을 인지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의 제시와 일관성 있는 규범을 통해 지속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기후변화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꾸준히 교육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여 공동의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뚜렷한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여 불이행에 대한 벌점과 처벌을 운영하는 등 강제적 수단을 발동함이 필요하다. 협력에 소극적이거나 정해진 이행 목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탄소세’의 부가와 국제 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단호한 대가를 부여해야 한다. 참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성과에 이바지한 국가에 경쟁의 원리가 지닌 보상 방식을 응용하면 보다 적극적 참여와 노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성신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2022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교시) / 문항 1~2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플랫폼 경제, 알고리즘, 인간의 편향성, 알고리즘의 편향성, 언어의 중의적 특성, 공유경제와 노동자, 노동법
예상소요시간	100분	

2. 문항 및 제시문

(1) 문항

【문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과 ㉡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제시문 <나>에 언급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에 대해서 아래 (A)와 (B)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900±100자)

(A) 경쟁은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가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그 일과 연관된 불리한 점과 위험 요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전망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 경제적 자유는 국가 권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행사하고 이로써 정치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하이에크, 『노예의 길』

(B)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자는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하여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최대 수혜자 갑은 최소 수혜자 을과 도덕적 비대칭성의 관계에 있다. 재능, 지위와 같은 도덕

적으로 임의적인 요소들의 작용으로 최대 수혜자가 된 갑은 최소 수혜자인 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정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평등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칙은 사회 기본 구조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하려는 것이다. - 롤스, 『정의론』

【문제 2】

제시문 <다>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사례 (A)에서 언급된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와 사례 (B)에서 언급된 승차 공유 서비스 종사자의 공유경제의 현실에 대한 상반되는 인식을 논하시오. (900±100자)

(A)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인 우버(Uber) 웹사이트에서 ‘드라이버로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드라이버 파트너용 사이트(<https://partners.uber.com/drive>)”로 연결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우버는 바로 당신과 같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우버의 기사가 되어 독립계약자로 수입을 올리세요. 승객을 태우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일주일 단위로 보수를 받으세요. 원하는 시간에만 운전하면서 돈을 버는 사장님이 되세요.”와 같은 내용으로 이익 잠재력을 강조한다. 기사를 모집하기 위한 옥외 광고판에서는 신규 기사에게 보장되는 주간 수입(weekly income)을 강조하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상사도, 제약도 없이” 일할 수 있다면서, 밝은 미래를 희망한다면 “우리를 헤드라이트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홍보한다.

(B) 28세 바란은 대학에 다니면서 주 4일을 우버(Uber) 기사로 일하고 있다. 뉴욕에서 앱 기반 기사로 일하려면 택시 기사와 동일한 보험과 면허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통 수천 달러의 초기 비용이 들고, 그 밖에도 연간 지출이 적지 않다. 바란은 그런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주당 400달러에 우버가 인증하고 보험에 가입된 면허 차량을 렌트해서 몰고 있다. “일주일에 최소 사흘은 일해야 차량 유지비를 댈 수 있어요. 이들은 렌트비를 벌고 하루는 유류비 같은 부대비용을 버는 거죠. 그 후에 버는 돈은 다 기사의 몫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하는 바란은 하루 250달러를 버는 게 목표다. 이 250달러는 우버 수수료와 통행료를 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의 주간 수입 내역을 보니 800달러를 넘기지 못한 주가 대부분이었다. “난 파트너(partner)가 아니에요. 독립계약자죠. ‘파트너’는 뭔가를 공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난 모든 비용을 내가 다 감당하거든요. 저쪽에서 나를 자르려면 언제든지 나를 수 있어요. 내가 파트너였다면 안 될 말이죠.” 공유경제는 탄력성을 보장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바란은 주 4일밖에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루 12시간씩 일한다. 각 경제는 탄력성을 말하지만, 직장에 매이지는 않아도 일에는 점점 더 강하게 매이고 있다. 품을 팔아 돈을 벌려면 항시 대기 중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제시문

<가>

AI는 잘 짜인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문제든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해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알고리즘은 다양한 해법 중 가성비가 가장 높은 최적의 경로를 찾도록 설계돼 있다. 페이스북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글을 추천하고, 넷플릭스가 감쪽같이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도 알고리즘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추천 서비스가 선택과 결정의 피로도를 덜어주고, 기업 입장에선 매출 신장을 위한 최적의 콘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으므로 서로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보편적 합리성을 지향하므로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이성적인 심사숙고보다는 감정이나 몇몇 소수의 단서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인간의 직관적 판단은 ㉠편향(bias)에 의한 오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잡한 환경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인간의 직관보다는 알고리즘에 의한 판단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있으며, 비록 모든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를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알고리즘에 대한 어떠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합성이나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러운 것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일상생활에 끼치는 역할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면 알고리즘에 대한 적대감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대중은 스포츠 세계에서 선수들의 연봉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알고리즘 공식에 의한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알고리즘에 의지하는 일이 늘어나면 결과의 패턴을 처음 직면할 때 느끼는 불편함도 줄어들 것이며, 직관적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편향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카너먼은 주장한다.

그러나 AI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사용자들의 기본 패턴을 좇아 콘텐츠를 추천하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가진 취향과 생각만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주관과 인식을 왜곡할 수 있으며, 사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더욱 ㉡강화된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자신과 다른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극대화되면 올바른 사고의 발전을 가로막고 결국엔 나와 타인을 분리하여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알고리즘의 목적지향성과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AI도 결국 데이터 수집의 대상인 인간의 취향과 경향성에 맞춰가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일종의 ‘정보 편식’이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분열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공정경쟁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향후 더욱 강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공정경쟁 이슈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학습할 때 데이터, 비용 그리고 시간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많은 이용자와 자본을 보유한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유지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정경쟁 이슈는 알고리즘 담합과 알고리즘 소비자 문제이다. 알고리즘 담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쟁 기업들의 가격 정보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가격을 변경함으로써 경쟁 기업보다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알고리즘이 인위적인 목적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알고리즘 소비자 문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발달하고 소비자의 소비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될수록 인공지능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알고리즘에 편향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검색엔진 결과에서 상위에 있는 결과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상위에 위치하지 못하는 결과들은 소비자들로부터 거의 선택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검색 서비스, 자동 배정 및 자동 배차 서비스 등은 보통 자사 플랫폼에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만약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이 자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차선의 혹은 편향된 결과를 제공할 경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성공적인 온라인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와 이용자를 연결하고, 이용자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업자와 서비스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 플랫폼은 참여자들 사이에서 시간, 노동, 자원 등을 공유하여,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불어 이용자는 다양한 경로로 각각 얻어야 했을 재화나 용역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무수히 많은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기존보다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혁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은 기존 시장에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접목함으로써 시장을 더욱 스마트하게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경우 자동화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정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고, 이후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면, 실사를 거쳐 약 48시간 만에 그 집을 매입한다. 이 기업은 AI 기술을 통해 최대한 정확히 시세를 추정하여 매입함으로써, 고객이 주택 매매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주고 있다.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공인인증서 혹은 보안카드로 대표되는 복잡한 인증을 없애고 패턴, 숫자, 생체 인증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어 내어, 기존 은행의 복잡성에 지친 고객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다>

언어에는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힘이 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라는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 1948년 영국의 유명한 풍자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소설 <1984>를 탈고했을 때 ‘더블스피크(Doublespeak, 이중어)’라는 새로운 말이 1984년경이면 유행하게 되리라고 예언했다. 그의 소설 <1984>에서 모든 단어의 원뜻은 개인들의 독자적 사고능력을 뿌리째 없애기 위해 왜곡되었고, 언어는 사람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더블스피크는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며 의도적으로 계산된 언어 사용을 의미한다. 언어가 사람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둘러대거나 포장한 말이 더블스피크이다. 이러한 언어 정책의 사용으로 청자는 원말이 내포한 부정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화자의 의도대로 왜곡된 의미로 그 대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미국 영어 교사 협회인 NCTE(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에서는 1974년부터 매해 ‘The Doublespeak Award’란 상을 수여함으로써 더블스피크의 사용을 풍자하고 있다. 1974년 캄보디아 주재 미 공군 공보담당관 데이비드 오퍼 대령은 기자들에게 “여러분은 계속 ‘폭격’이라고 쓰는데 폭격이 아니라 ‘공중지원’입니다.(You always write it’s bombing, bombing, bombing. It’s not bombing! It’s air support!)”라고 함으로써 최초의 Doublespeak Award 수상자가 되었다. 1983년에는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인류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MX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평화수호자(Peacekeeper)’라고 불려서 이 상의 수상자가 되었다. 더블스피크는 이처럼 의도적인 언어 왜곡을 의미한다. ‘인력재배치, 전직 기회, 포괄적 효용성 제고’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이 말들은 기업들이 ‘해고’를 대신하여 쓰는 더블스피크이다.

언어가 가지는 힘은 노동(labor)에 다른 이름표를 붙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규제에 대한 대응을 용이하게 하는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와 같은 Gig 경제(gig economy)는 기존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어휘를 만들어 낸다. 우리는 더는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영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 ‘긱(gig)’, ‘인간지능작업(HIT, Human Intelligence Task)’, ‘과업(task)’, 그리고 ‘호의(favor)’라는 열정적인 용어가 노동시장의 전통적인 어휘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영시간 계약은 근로시간을 정해 두지 않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작업자(worker)가 호출에 응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긱(gig)은 공연참여(engagement)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공연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소위 플랫폼 경제에서는 일회성 작업이나 거래를 의미하게 되었다. 인간지능작업은 아마존(Amazon)에서 제공하는 MTurk라는 온라인 서비스에 요청자(requester)가 과업(task)을 올리면 작업자(worker)가 수행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미국의 여러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배달 서비스를 ‘호의(favor)’라고 부르고, 배달하는 ‘주자(runner)가 ‘영웅(Hero)’이 되도록 유도한다. 여러 플랫폼 기업들은 경제적 사업가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포장하고, 노동자에게는 프리랜서 사업가 혹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Gig 경제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길러주는

행위로 포장하고 있다.

3.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는 알고리즘 판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에서 주로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소비자에게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과 결정의 피로도를 덜어주고,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 콘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의 기본 성향과 패턴을 좇아 콘텐츠를 추천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과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사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편향을 강화하게 되는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관련 교과서:

- 구정화 외(2018), 『통합사회』 (pp.86~91), 천재교육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 (pp.84~87), 동아출판
- 김국현 외(2019), 『생활과 윤리』 (pp.128-135), 비상교육
- 변순용 외(2019), 『생활과 윤리』 (pp.128-137), 천재교육
- 정탁준 외(2019), 『생활과 윤리』 (pp.123-131), 지학사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162~173), 비상교육
- 신유식 외(2018), 『국어』 (pp.116~133), 미래엔
- 박영목 외(2018), 『독서』 (pp.64~66), 천재교육

- 제시문 <나>는 공정경쟁과 혁신에 대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초로 빅데이터, 기계 학습 등의 AI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현재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기사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이 오히려 알고리즘을 통해 기업 간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는 한 측면을 제시하는 한편,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랫폼 기업의 혁신 활동을 통해 시간, 노동, 자원 등을 공유하여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진하는 측면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부동산 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혁신 활동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 교과서:

- 정창우 외(2018), 『통합사회』 (pp.134~136), 미래엔
- 김진영 외(2018), 『경제』 (pp.38-39), 미래엔
- 박형준 외(2018), 『경제』 (pp.86-87), 천재교육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162~173), 비상교육
- 변순용 외(2019), 『생활과 윤리』 (pp.128-137), 천재교육
- 김동환 외(2018), 『국어』 (pp.232~240), 교학사
- 최형용 외(2018), 『언어와 매체』 (pp.206~227), 창비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 (pp.246~260), 미래엔

- 제시문 <다>는 인간의 사고를 담아서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언어가 왜곡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사용된 ‘더블스피크’를 이용하여 제시한다. 언어의 왜곡이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 사용되는 예와 최근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인 기 경제에서, 배달 혹은 승차 공유업체 기업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지문을 제시하고 있다. 더블스피크의 사용이 기 경제에서 단순히 기 경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주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최저임금 회피, 기업의 납세 부담 최소화, 고용기준법 회피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 경제 종사자들이 노동자 혹은 직원으로서의 보호는 받지 못한 채, 개인사업자라는 미명 하에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을 기존보다 더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비판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는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교과서:

- 최형용 외(2018), 『언어와 매체』 (pp.206~227), 창비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 (pp.246~260), 미래엔
- 이도영 외(2018), 『화법과 작문』 (pp.232~235), 창비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32~33), 비상
- 김동환 외(2018), 『국어』 (pp.232~240), 교학사
- 신유식 외(2017), 『국어』 (pp.174~197), 미래엔
- 박영목 외(2018), 『독서』 (pp.64~66), 천재교육
- 최원식 외(2018), 『문학』 (pp.12~13), 창비
- 고희진 외(2018), 『경제』 (pp.86~87), 천재교육

- 서범석 외(2018), 『정치와 법』 (pp.164~168), 지학사
- 구정화 외(2017), 『사회·문화』 (pp.194~196), 천재교육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 (pp.136~137), 동아출판

4. 출제의도

- 202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글쓰기 역량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구성은 고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어』,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 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언어의 특성, 플랫폼 경제의 발달과 규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편향성, 공유경제, 근로기준법, 광고 매체의 언어 사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
- 교과서의 지문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글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읽고, 이를 주어진 시간 내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 내용을 비교, 분석, 적용, 평가함을 넘어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도록 문제를 출제했다.

5.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영역별 내용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p. 59)	제시문 <가>~ <다>

	성취 기준 2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61)	제시문 <가>~ <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82)	제시문 <가>~ <다>
	성취 기준 2	[12화작03-06]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 (p. 82)	제시문 <가>~ <다>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p. 94)	제시문 <가>~ <다>
	성취 기준 2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p. 95)	제시문 <가>~ <다>
	성취 기준 3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p. 97)	제시문 <가>~ <다>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1	[12언매01-03]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오늘날의 의사소통 매개체로 활용되는 공고,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 다양한 매체들의 유형을 알고, 그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p. 110)	제시문 <다>
	성취 기준 2	[12언매03-06] 대중매체가 지닐 수 있는 영향력과 같은 장점과 상업성, 지배층의 이데올로기 제약 등의 단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함으로 주체적으로 향유하도록 한다. (p. 115)	제시문 <가>~ <다>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3] 문학이 다양한 인접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문학의 외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입체적인 태도로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p. 126)	제시문 <다>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p. 43)	제시문 <가> <나>
	성취 기준 2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p. 43)	제시문 <가> <나>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p. 59)	제시문 <나> <다>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p. 127)	제시문 <가> <나>
성취 기준 2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p. 131)	제시문 <나> <다>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효과, 공공재와 공유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p. 221)	제시문 <나>
성취 기준 2	[12경제02-04] 시장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p. 221)	제시문 <나> <다>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1	[12정법05-03]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탐구한다. (p. 239)	제시문 <다>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5-0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p. 252)	제시문 <가>~ <다>

나) 자료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교과서 등)	재구성여부
생각에 관한 생각	대니얼 카너먼	김영사	2018	307-308, 359.	제시문<가>	○
알고리즘은 완벽하지 않다....제기되는 ‘불완전성’ <신문기사>	구현화	쿠키뉴스	2020. 11. 20		제시문<가>	○
“백년뒤 로봇이 인간지배“ 호킹예언 실현 막으려면 <신문사설>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8. 11. 23		제시문<가>	○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 공정경쟁 이슈 검토 <보고서>	남상준 외	ETRI Insight	2019	2-5	제시문<나>	○
30조원 평가 카뎁, 혁신보다 규제 특혜 값 <신문기사>	양성희	머니투데이	2021.4.15.	-	제시문<나>	○
플랫폼 혁신, 외부규제보다 내부인식전환으로 시작해야 <신문사설>	최경진	동아일보	2021.9.25.	-	제시문<나>	○
KAKAO와 NAVER는 어떻게 은혜이 되었나	김강원	미래의 창	2020	98-99, 159-161	제시문<나>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9	198	문제 <1>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9	97	문제 <1>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알렉산드리아 래브넬	롤리코스터	2020	17-18, 92-94	제시문<다>	○
Hustle and Gig	Alexandrea J. Ravenelle	California University Press	2019	288	문제 <2>	○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슬	숨쉬는 책공장	2020	19, 91-93	제시문<다>	○
Human as a service	Jeremias Adams-Prass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209	제시문<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플랫폼 자본주의와 배달노동자	신승철, 이승준, 장윤석, 전병옥	북코리아	2021	315	제시문<다>	○
더블 스피크 <신문사설>	홍대신문	홍대신문	2017.05.09	-	제시문<다>	○
단어 참뜻 왜곡 “doublespeak” 챔피언은 미국무성 <신문사설>	중앙일보	중앙일보	1984.11.27	-	제시문<다>	○
Doublespeak Award	NCTE(미국영어교사협회)	NCTE	2020	-	제시문<다>	○

6. 문항 해설

- 【문제 1】은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알고리즘이 주로 활용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부 규제와 관련한 분석적 사고와 적용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알고리즘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파악하고, 제시문 <나>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정도와 타당성을 큰정부와 작은정부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제시문 <가>는 인공지능의 편향성에 대해 다룬 신문기사와 인간의 편향성에 대해 다룬 대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의 내용을 발췌·재구성하였으며, 제시문 <나>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담합과 소비자 문제를 다룬 보고서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발췌·재구성하였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를 통해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파악하여 알고리즘 판단과 인간의 편향에 대한 관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 나타난 플랫폼 경제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정부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인 신자유주의(작은정부론)와 수정자본주의(큰정부론)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톨스의 관점을 채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여야 하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하이에크의 관점을 채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여야 한다.

- 【문제 2】는 언론이나 광고에서 사용되는 문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인간의 사고를 담아서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언어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업체에서도 이용자와 사용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더블스피크(Doublespeak)’ 즉 이중어라는 용어를 빌려서, 언어가 가지는 표면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를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하는 문구에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제이다.
-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조지 오웰에 의하면, 글쓰기는 진짜 목적과 외부에 내세우는 목표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본능적으로 긴 단어를 쓰거나 진부한 관용어구를 늘어놓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조지 오웰 시대의 역사적 맥락이 오늘날과는 다르다. 하지만 조지오웰의 <1984>에 제시된 언어 사용과 관련된 경고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글쓰기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사법과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은 글의 표현 방법이 글의 목적과 내용, 글이 쓰인 상황 등에 비추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글쓰기의 관점,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이념 등을 독자가 판단하여 읽는 활동을 요한다. 글이 쓰인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 자료 등에 강조되거나 축소·생략된 부분, 심지어 왜곡된 부

분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문제는 최근 급격한 성장과 함께 성장통을 겪고 있는 플랫폼 경제 혹은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의 성장통을 언어가 가지는 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글을 읽는 독자들이 글 속에 나타난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먼저, 제시문 <다>의 전반부에서 <1984>라는 조지 오웰의 문학 작품 속에서 더블스피크라는 이중어를 사용하여 원래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왜곡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의 사고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더블스피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다>의 후반부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특징 중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목적인 근로기준법과 같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에 제시된 두 상반되는 사례를 통하여, 언어 표현이 가지는 중의적인 기능으로 인해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와 그러한 중개업체에 종사하는 드라이버 사이에 인식의 차이를 낳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는 드라이버가 독립계약자로서 자유롭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광고를 하였지만, 실제 공유 중개업체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드라이버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보다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일에 얽매인 상태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공유업체가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7.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의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의 AI 알고리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과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주요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제시문 <가> 및 제시문 <나>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 및 혁신 활동을 분석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가지 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차원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문제 1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의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인간의 편향성 극복 차원, 인간의 편향성 강화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둘째, 제시문 <가>에 나타난 AI 기반 알고리즘 하에서의 편향정보와 제시문 <나>에서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 이슈 및 혁신 활동의 주요 특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한다.

셋째, 제시문 <가>에 제시된 AI 기반 알고리즘의 편향정보와 제시문 <나>에 제시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 이슈 및 혁신 활동 정보를 활용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하이에크(노예의 길)와 롤스(정의론)의 발췌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 관점을 선택하여 정부 차원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정도와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문제1>

- ① 제시문 <가>의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인간의 편향성 극복 차원, 인간의 편향성 강화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 ②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 이슈 및 혁신 활동을 각각 자세히 파악한다.
- ③ 제시문 <가>와 <나> 및 문제에서 주어진 하이에크(노예의 길)와 롤스(정의론)의 발췌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 관점을 선택하여,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문제 2】 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다>에 나타난 언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문 <다>의 후반부에 제시된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더블스피크의 특징을 가질 수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문 <다>의 내용이 사례 (A)와 사례 (B)에 적용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다>에 제시된 더블스피크의 관점에서 사례 (A)를 비판하고, 사례 (B)에 처한 노동자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제시문 <다>의 후반부와 사례 (A)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문 <다>의 후반부에 제시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B)의 사례를 논하는 과정에서 언급할 수 있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문제 2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1984>의 더블스피크가 가지는 특징을 파악해서 기술하고, 더블스피크가 소설 속에서만이 아니라 정치·경제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언어의 특징임을 파악한다.

둘째, 제시문 <다>의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1984>에서 사용되는 더블스피크와 유사한 특징이 있으며, 그 이면에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파악한다.

셋째, 사례 (B)에 제시된 승차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례를 분석하여, 사례 (A)에서 사용된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의 용어 사용으로 인해 승차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기술하고,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혹은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문제 2>

- 제시문 <다>에서 <1984>에서 사용되는 더블스피크의 특징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 제시문 <다>의 정치, 경제 및 사회 현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1984>에서 사용되는 더블스피크와 유사하게 언어 표현을 통해 현상을 왜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파악한다.
-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와 승차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례를 비교하

여 더블스피크가 가지는 기능으로 인해 승차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근로 기준법과 같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와 승차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례를 비교하여 공유경제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혹은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8. 예시답안

【문제 1】

예시 답안 1

- 제시문 (가)에는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알고리즘 판단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보편적 합리성을 지향하므로 소수의 단서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인간의 직관적 판단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 즉, 인간의 직관적 판단은 감정에 의해 편향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알고리즘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직관적 판단에 따른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알고리즘 판단이 오히려 인간의 편향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에는 인간의 편향성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 역시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주관과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사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공정경쟁 이슈가 나타나 있다. 플랫폼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나 담합에 따른 시장 질서 훼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하이에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은 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경제적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견제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막 진입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기보다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도가 될 것이다.

예시 답안 2

- 제시문 (가)에는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알고리즘 판단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보편적 합리성을 지향하므로 소수의 단서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인간의 직관적 판단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 즉, 인간의 직관적 판단은 감정에 의해 편향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알고리즘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직관적 판단에 따른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알고리즘 판단이 오히려 인간의 편향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에는 인간의 편향성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 역시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주관과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사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AI 기반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 측면에 있어, 자원의 집중화와 알고리즘 담합을 통한 공정경쟁 이슈가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자원이 집중화되고 대형화된 플랫폼 기업의 경우, 사업확장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알고리즘 기술을 편향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대형화된 플랫폼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생 플랫폼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결국에는 불공정경쟁을 하는 플랫폼 기업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공지능 담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플랫폼

품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강화는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형화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정책은 톨스의 정의론에 언급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플랫폼 기업의 혁신 활동을 보다 지지한다면 하이에크(노예의 길)의 관점이 정부 차원 규제 완화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공정경쟁 이슈를 우려한다면 톨스(정의론)의 관점을 기반으로, 정부 차원 규제강화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도록 논할 수 있다.)

【문제 2】

- 제시문 <다>의 전반부에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반영된다.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내용이나 표현 방법, 자료 등에 강조되거나 축소 혹은 생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왜곡되는 부분 등이 있을 수도 있다. 제시문 <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에서 소개된 더블스피크를 소개한다. 더블스피크는 단어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숨기고 왜곡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더블스피크는 소설뿐만 아니라, 정치 및 경제 분야 등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가 가지는 힘을 통해 우리가 왜곡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시문 <다>의 후반부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의 기업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 혹은 노동자와 같은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과업’ 혹은 ‘독립계약자’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용어의 사용을 회피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실제 사례 (A)와 (B)를 비교해 봄으로써 언어가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승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와 독립계약자로 계약을 맺은 바란과 같은 노동자들은 기존의 택시 회사에서 일하는 택시운전사와는 달리 회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보장, 실업 급여 등과 같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한 채, 독립계약자 혹은 소위 개인사업자로서 일에 얽매어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버가 광고한 것과 같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란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주당 평균 48시간 정도의 일을 해도 렌트비와 유류비 등 제반 비용을 제한 순수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공유업체들은 화려하고 수사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 전달되는 현실을 왜곡하기보다는 바란과 같이 그 공유업체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진정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다.